**변화하는 Decision-making 패러다임에 대처하는 너와 나와 우리 (정지원)**

처음 과제를 접하고 나서는 내용요약만 간단히 하려고 했다. 그런데 생각이 많으신 수학선생님께서 초등학생도 알고 있을 현상 · 원리로 요약 수준의 감상문을 의도하셨을 리 만무하다 생각했다. 과거 미래 현재를 오가며 이과 과목이 아닌 교양과목이 되어야할 통계학을 공부하는 목적과 통계학이 의무교육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예시로 설명해보겠다.

* 합리적 의사결정의 도구

A주식이 내일 아침 오를지 내릴지 확률은 50%, 50%이다. 그렇다면 A가 오를 때 버는 돈과 내릴 때 버는 돈이 같다면 베팅 비용이 저렴한 곳을 선택해 지속적으로 거래하면 결국 벌 것이다.

* 선견지명을 설명하는 유일한 언어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이번 달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휴가를 가고 싶다. 매출 손실을 최소화하라는 본사를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번째 방법은 감으로 우기는 것이다. “여름이 끝났으니까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에 관심이 없을 것이고 내 휴가로 매출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야” 두번째 방법은 그간 수집한 데이터를 근거로 설득하는 것이다. “기온이 15~25도 사이일 때 1도 오를 때마다 아이스크림이 약 100개씩 더 팔리니, 다음주 제일 낮은 기온 15도인 수요일에 휴가 가겠습니다. “당신이 본사 실무진이라면 첫번째에 설득 당할 것인가 두번째에 설득 당할 것인가?

* 편향을 극복하는 가장 객관적이라고 알려진 도구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한다. 어떤 선택은 누군가의 향후 50년간의 삶, 누군가의 노후, 누군가의 향후 5년을 좌우한다. 그럴 때마다 외부요인에 의해 우리의 판단을 흐려지고 한다. 그날 날씨, 월요일, 식곤, 선호하는 향수로 합리적 판단을 못하게 된다. 판단잘해씨는 투자자이다. A, B 두 기업실사를 다니고, 본부로 돌아와 선택을 해야 했다.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 A기업의 실사는 투박하게 생긴 무뚝뚝한 담당자가 나와 물어보는 답에만 답하였다. 적당한 햇살이 비쳤던 날, B기업의 실사는 깔끔하게 생긴 담당자가 나와 따뜻한 커피를 쥐어 주고 회사를 소개했다. 판단잘해씨의 선택지는 2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실사동안 기분이 좋았던 B기업에 투자하기. 두번째는 실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투자하기. 두번째 선택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펀더멘털”이라는 확실한 숫자가 있기 때문이다.

난 미래의 새싹들이 “찢어진 달력을…, 소금물을 섞었는데..., 수박의 부피가…, 의열단 단원이 아닌 것은?” 등의 문제들로 소모적으로 줄 새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각자 통계학을 통해 높은 확률로 행복해질 수 있는 선택지를 선택하고 각자의 행복을 위해 싸워야 할 것이다.